

포토뉴스



은평구, 집중호우 대비 예·경보 발령 훈련

서울 은평구가 최근 주민 및 동행트너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암3동에서 집중호우 대비 침수 예·경보 발령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동행트너의 모습.



남양주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연합회서 성금 전달 받아

경기 남양주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지역내 저소득 영유아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경기 남양주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사진은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수원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예비과제 심사회의

경기 수원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과제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의정부시, 민원행정·제도 개선 계획 수립 간담회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전문가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진행 모습.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공감·소통

인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24일 '학산 가족 음악회'

인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학산 가족 음악회'가 6월 국악 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관현맹인 전문예술단의 '세종의 날'에 조연되며, 오는 24일 오후 7시 학산소극장에서 열린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특별한 무대로, 전통예술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관현맹인 전문예술단'은 세종대왕이 만든 '관현맹인' 제도의 전통을 계승한 단체다.

2011년 재창단 이후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울림을 현대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의 생활 연주자인 김효연 예술감독과 시각장애인·비장애인 단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카타르 월드컵 초청공연, 카네기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단원들이 직접 창작한 음악과 함께, 점차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소리극 <훈맹점음>의 일부를 발매해 선보인다. 또한 '음미어천가', '함오백년 판자지'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과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산 가족 음악회는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성숙한 공연 관람 문화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유료 공연으로 전환을 운영 중이다. 6월 공연 '세종의 날'은 학산소극장에서 진행되며, 관람료는 전석 5000원이다. 예매는 엔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인천-문천식 기자 mcs@siminlibo.co.kr



SNS 서버터즈 위촉 경기 구리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2026년 제7기 구리시 SNS 서버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위촉식에서 임진석 부시장(가운데)이 7기 서버터즈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화한 대신 쌀 기부... 따뜻한 나눔으로 새로운 인생 출발~

중랑구, 신혼부부 김정민·이현민씨와 쌀 전달식

서울 중랑구는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 김정민·이현민씨로부터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820kg(10kg 82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 신혼부부가 화려한 축하 화환 대신 이웃을 위한 나눔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한 것이다. 이번 기부는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며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화환 대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객들에게 축하 쌀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부부의 취지에 공감한 하객들의 마음이 더해져 총 820kg의 쌀이 모였다.

기부에 참여한 신혼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을 더욱 뜻깊게 기억하고 싶어 화환 대신 쌀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며 "축하해 주신 마음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트가 될 바란다"고 전했다.

여준 기자 yy@siminlibo.co.kr

신경다양성 어린이들 세상에 말을 걸다

강북문화재단, 13일 참여형 공연

서울 강북문화재단은 신경다양성 어린이를 위한 참여형 무용 공연 '아호야호 Echoing Dance'를 오는 13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진달래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6~10세(2017~2021년생) 신경다양성 어린이들이 세상과 서로에게 말을 거는 재마디의 방식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릴렉스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연 중 자유로운 임피지트가 가능하며,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행동 역시 허용된다.

'신경다양성'은 발달장애, 발달 지연,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ADHD 등을 장애 유형이 아닌 각각 다른 행동 양식과 감각의 차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개념이다. '아호야호 Echoing Dance'에서 특

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해진 규칙 없이 관찰 방식 대신, 무용수와 어린이 관객이 순간의 반응을 주고받으며 함께 열린 놀이판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은 무대 위 오브제를 직접 만지고, 옮기고, 던지거나 몸을 기댄다. 소리에 곧 기울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연에 참여한다. 서로 다른 몸과 감각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 서로를 부르고 응답하며 매리미처럼 공명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공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2회 진행된다. 회차당 최대 8명의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50분 동안 진행된다. 다만 동반 가족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입장 가능하며, 형제자매 아동은 객석에서 관람할 가능하다.

문인호 기자 mmh@siminlibo.co.kr

평년 농사 기원 '모내기' 행사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지회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지회연합회가 최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악암리에 위치한 공동농장에서 올해 평년 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을 비롯해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 연합회 및 농업 관련 유관 단체장, 농촌지도자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행사의 종년을 기원하며 공동담 모내기를

했다. 특히 이석범 부시장은 병해충 없는 종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이날에 담을 모내기 시범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모내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새참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1990년부터 이어져 온 공동담 경작 사업은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원들이 협력해 1만9786㎡ 규모의 농지를 공동 경작하는 연합회의 핵심 활동이다.

김포-문천식 기자 mcs@siminlibo.co.kr

아이들도 부모들도 재미있는 환경놀이

성동구, '토요 가족환경교육 프로' 인기

서울 성동구는 올해 2월부터 매월 2회 정기 운영 중인 '토요 가족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토요 가족환경교육'은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이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환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구에 거주하고 있는 5~10세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2회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새마을봉사자 내 성동구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매월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체험 활동은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양말뚝 도어벨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파피라기 비누 만들기, 나만의 커팅 만들기,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오는 6월에는 제피 가랜드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화북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신수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회차당 6가족 규모로 모집한다. 매월 모집 때마다 빠르게 신청이 마감될 만큼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박소진 기자 zin@siminlibo.co.kr

단오 맞아 풍년기원제 개최

한살림 산청생산지연협회

한살림 산청생산지연협회는 지난 30일 경남 산청군 차평면 금포림 일원에서 '단오친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남권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시 소비자 등 500여명을 초청해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화합을 다졌다.

행사에서는 생산자 길놀이로 시작으로 풍년과 공동체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 전달 한 해 농사의 풍년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 풍년기원제, 난타공연 등이 이뤄졌다. 또 줄다리기, 신발 던지기 등 대동놀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산청-이경수 기자 lys@siminlibo.co.kr

Advertisement for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featuring the slogan 'Innovative Growing City' and 'TANANTHAN Industrial Ecosystem Structure Leading Growth of IFEZ'. The image shows a modern cityscape with skyscrapers and green spaces.